3 - AUG - 9
Copy ______ 1960

시사만화잡지

활살

№1 (50) 1955.1

콩트

하나의 결의

오늘은 설날이다!

덕삼이네 집 식구들은 동녘이 채 물들기 전 부터 일어나, 가슴 뿌듯히 치밀어 오르는 새 결의를 나누며 웃음 꽃을 피 웠다

『난 올해에는 작년 보다 적어도 50% 이상은 일을 더 하겠다』

소담스러운 방안에 가득 둘러 앉은 식구들의 얼굴을 대견히 바라 보던 덕삼은 두터운 입술을 열어 묵직히 말을 시작했다

그는 트레스트에 다니는 미장공이다 한 평생 일에서 단련된 그는 남 달은 경험과 기술을 쌓았으며 그의 손은 보배와 같이 귀중하다 쓰딸린 거리 포장공사를 비롯하여 평양시의 많은 건설공사에서 그의 재간 있는 솜씨는 남들이 모다 부러워 할 지경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며 년간계획을 160프로로 완수 하였다 오늘 그는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결의가 굳어 지며 온 몸에 힘이 솟구 치였다

『아버지 저는 나의 정방기를 내 손발과 같이 부려 950추를 담당 하겠어요』

평양방직공장에 단이는 옥련은 어제 밤 늦게 설을 맞으려 같이온 동무인 채화와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아버지의 말을 듣자 짐짓 무릎팍을 도사리고 다가 앉으며 말 했다

『옥련아! 나두 너만 못지 않게 950 추를 담당 하겠어 하하하』

채화도 담뿍 웃음을 얼굴에 피우며 자신 있게 말했다

채화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인민군대가 진격해 나갔다가 들어 올때에 남반부에서 후퇴해 들어 왔다 그리하여 그는 조국의 품안에서 마음 껏 기쁨을 느끼며 무럭 무럭 자랐다

『우리 그럼 옥련이, 채화, 나, 셋이 경쟁을 체결하자!』

『그러세요 누가 이기나 해 보세요! 하하하』

두 처녀의 눈동자는 유난히 빛나고 덕삼이도 뽐을 내었다

옥련은 이때 어제 공장에서 상을 받은 옷 감을 덕삼의 앞에 내어 놓았다

『아버지 이걸로 바지와 저고리를 지어 입으세요』

벌거시룽시룽한 덕삼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쳐 흐르고 두 어깨가 들먹 거리였다

×

옥련이와 채화는 쏘련인민들이 보내준 현대식 장비를 가춘 정방기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밀성을 가진 기계의 특성을 충분히 료해하고 조작 하지 않으면 손 쉽게 방추를 담당 할수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인 순회 코스를 더욱 과학적으로 타산 하고 순회시간과 순서의 치밀성을 보장하며 더욱 규칙적으로 작업을 진행 했다 그들은 쏘련의 아나니바의 작업방법을 더욱 세밀히 연구섭취하여 850추를 능히 조사 하였다 그리하여 옥련이와 채화는 지배인상을 받았던 것이였다

『누나 난 최우등생이 되겠어』

이때 새옷을 입고 무럭대고 기뻐 뛰기만 하던 인수도 제법 떤질하게 뽐을 내고 참견 하였다

그렇다 보니 어머니만 자기 결의를 말 하지 않아 여러 사람들의 시선이 저절로 어머니에게 쏠리였다 어머니는 한참 망서리다가 입을 열었다

『난 살림살이나 잘 하겠다』

덕삼이네는 새로 지은 사택에 들었었다 물가는 자꾸 내려가고 월동준비도 충분히하여 살림은 기름끼 돌았다 어머니는 남편과 옥련이 받아온 봉급과 년말 상금으로 인수와 첫먹이 종수의 옷과 신을 사고 설 준비에 벌써 이틀전 부터 바삐 서둘었다

『하하하… 그래 살림을 잘 합세』

성질이 괄괄한 덕삼은 온 몸이 시뭍거리도록 웃음을 지었다

『그런 나라에서 인민들의 살림을 자꾸 향상 시켜 주는데 잘 못하면 돼요』

평소에 그리 [illegible] 좋지 않고 마음씨 착한 어머니는 얼굴이 좀 상기 되였다

『우리 마누라가 살림에는 일등이 구만 올해 부터는 살림에서는 절약을 해서 저금을 매 달 하잔 말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덕삼이네의 행복한 생활! 설날을 맞아 결의하는 그 아릿다운 장면! 이것은 비단 덕삼이네 뿐 아니며 새 해를맞는 북반부의 어느 집을 물론 하고 다 같으리라!

그러나 남반부는 생지옥이다……

채화는 남반부에 계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선히 떠 올랐다

그는 공화국의 따뜻한 품 안에서 행복한 생활 속에 고귀한 기술까지 배우고 있으니 그럴수록 부모의 처지가 생각 되었다

……………………

『얘 채화야!』

덕삼은 바싹 다가 앉는다

그리고는 아주 정중하고 무겁게 다시 입을 열었다

『채화야 지금 공화국 방방 곡곡 그 어디에서나, 누구를 물론 하고 새 해의 새로운 결의를 다진다!

그 결의는 모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물질적 담보로 되는 3개년 계획을 실행 함에 있어서 결정적 해인 올해의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및 초과완수 하려는 하나의 결의이다!』

채화의 얼굴에는 더욱 명랑한 빛이 넘쳐 흐른다 방안에는 다시금 벅 차고 행복 된 웃음 소리 높다 새해 아침 바깥 멀리에 까지 웃음 소리는 퍼져 진다

—류 달—

원 광 수 삽화

1955 년은 우리 조국 력사 발전에서 영원히 빛날 승리의 해로되게 합시다

리 영 춘 그림

승리로 빛나는 영광스런 우리 조국
일떠서는 힘이 오르는 태양 같이
3개년 계획의 기간을 단축함에
궐기한 우리 력량 막아낼자는없다

경애하는 수령께 한결같이 아뢰인
조국통일 위업의 맹서 굳거니
한 가정에서 살아온 3천만의
평화통일의 대로를 막을자는 없다

수령의 주위에 한 사람같이 뭉쳐
그분의 령도 그분의 교시를 따라
영광스러운 위업에 승리할 새해
첫 아침의 태양이여 오르고 또오르라

섯달 그믐날

행복한 웃음 속에서

감격의 년말 상금을 받고 새해를 맞이하는 평로공 추상수 동무의 가정은 웃음꽃이 피였다 그는 이미 1954년 10월 3일 년간계획을 완수하였다 그는 오늘의 이감격을 새해의 더큰 로력적 위훈으로 보답할것을 굳게 결의하고 있다

안 창 수 그림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리승만 도당에 대한 저주와 증오와 분노로써 새해를 맞이한다 남조선의 헌병, 경찰, 테로단들은 인민들의 가택을 강제로 수색하며 인민들의 죽거리마저 모조리 략탈해 가고있다

기아와 테로 속에서

당연한 결과

생산 예비를 철저히 동원
리용하지 않은 결과…

그는 탄광의 영예를 새해 첫 시작 부
터 손상시켰다

최 한 진 그림

하면탄광에서는 생산 예비를 동원리용함에
있어서 등한시한 결과 1월분 석탄 생산 계
획을 10일동안에 16%바께보장하지 못하였다

빈틀 차림

틀을 차리자면 책이 필요 해

흡족한 마음으로 한 아름사서

빈 서제는 채웠것만

그러나 머리는 그대로 비였다

최 영 근 그림

무슨 병증인가

기양 기계 건설트레스트에서는 지배인 박승운 동무라면 건설사업에서 오랜경험을 가진 일꾼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시대의 정치리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치학습에 해만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자기의 결함을 시정하려고 여러번 곰곰히 반성하였으나 그것은 다만 그때 뿐이였다 그의 사업에서 민주주의 협의제를 강화하기 위한 로력의 흔적을 찾아 보기는 좀처럼 힘들었으며 전체 종업원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고무추동하는 대중정치 선전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 조차 돌리지 않았다

지난 늦은 가을 어느 날이였다 1954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년간계획 달성에 초조해진 지배인은 갑자기 간부회의를 열었다

지배인은 신통한 방안이 없는 막연한 보고를 하고는 간부들의 의견을 물었다

언제나 입빠른 말을 잘 하며 지배인의 비위를 잘 맞추는 행정경리부장 오수근동무가 입을 먼저 열었다

『바쁜 고비에는 그저 고삐를 바싹 죄이고 내 모는수 바께 없습니다』

『그렇지요 공사의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당분간 정치학습이나 문화사업을 제쳐 놓고 냅다 몰읍시다』

로동공급부장 김희탁동무도 거들었다

그러나 직맹부위원장 최도선동무는 그저 있을수 없었다

『앞으로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계획 달성을 위해 특별 로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사업, 지도 사업이 중요하게 나섭니다 이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자면 로동자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정치 선전사업을 차요시하는것도 안됩니다』

직맹부위원장의 말에 지배인 이하 다른 간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설 틈도 없는데 언제 그런걸 하고 있겠소』

행정경리부장은 한심하다는 듯이 툭 쏘았다

『물론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직사업과 지도사업이 필요하지만 이와 못지 않게 대중정치 선전 사업도 중요합니다 만일 대중 정치 선전사업이 원만히 보장되여왔다면 이렇게 락후 하지 않았을것이고, 오늘 이런 론의도 필요 없을것입니다』

직맹부위원장이 말을 더 계속하려는 것을 지배인이 가로 차고 나섰다

『직맹부위원장동무는 참 천하태평이요 우리의 돌격 공사에 그 사업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소』

지배인은 자기의 말에 위엄을 주노라고 기침을 몇번 했다

『사상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전체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중요 조건의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을 병행해야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직맹 부위원장은 단호하게 말을 했다

그러나 지배인은 자기 의견에 맞는 일부 간부들의 의견만을 종합하여 현장 지도 그루빠를 동원하면서 건설공사를 질풍같이 진행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곧 지배인의 명령으로 되여 건설공사는 착수되였다 현장은 눈이 돌아갈 지경이다

그러나 이 기업소의 모든 정치 선전사업은 깊은 잠이 들어 버렸다 로동자들은「돌격」에 몰아내여 지기만 하며 정치 사업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으며 간부들의 신문은 도서실에서 보름씩이나 먼지 속에 파묻혀 있다

눈이 나리자 기양벌에 차고 매운 바람이 일어났다 한난계의 수은주와 같이 로동자들의 작업능률은 각일각으로 나려간다 년말 계획을 완수하기는 이미 하늘의 별따기로 되였다

지배인의 마음은 몹시 초조해 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대중 정치 선전사업의 중요성을 전연 망각한 자기의 잘못을 얼른 깨닫지 못하고있다

—석 봉—

원 광 수 삽화

두가지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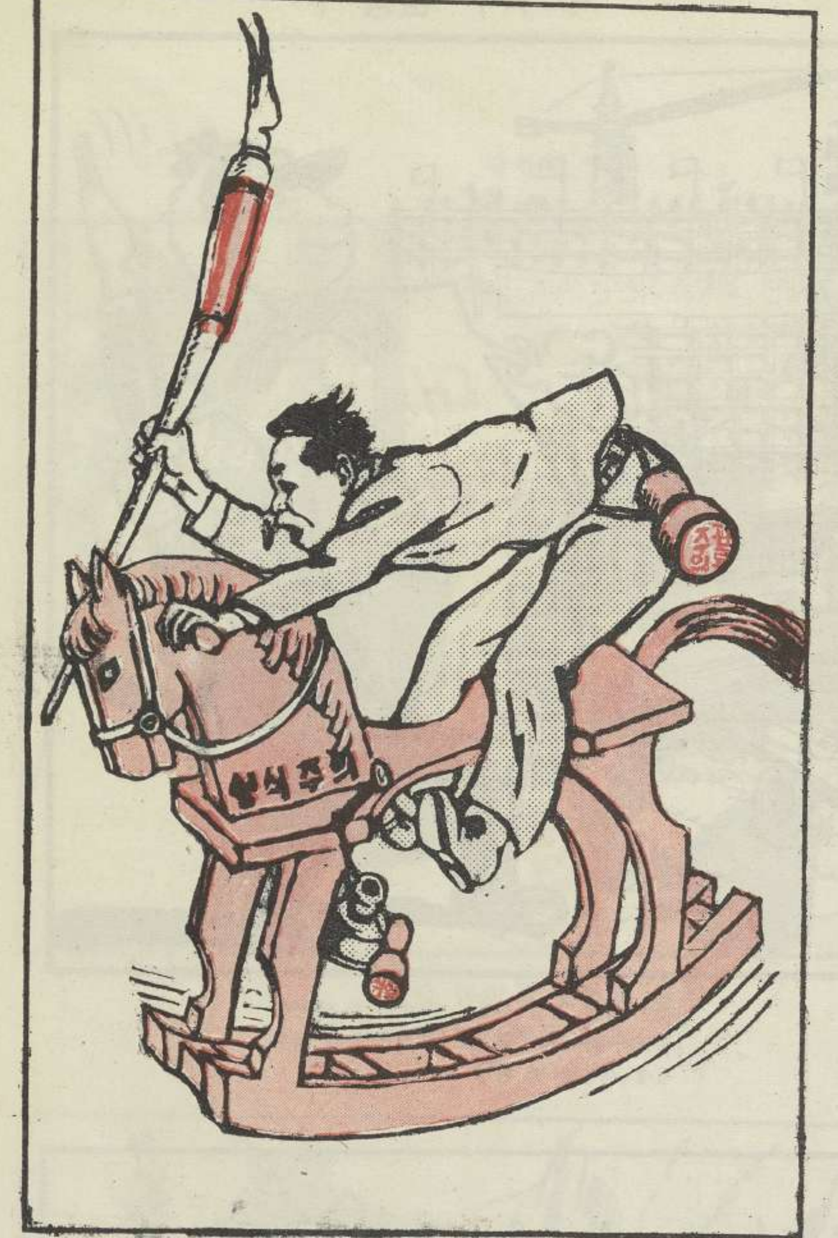
대중 정치 선전 사업이 잘되는 곳 에서는
로동자들의 애국주의적 열성이 불타 올라
건설 사업이 잘 되며

대중 정치 선전 사업이 락후한 곳에서는
로동자들의 애국주의적 건설 의욕도 저하되여
건설 사업이 잘 되지 못한다

백 인 균 그림

중앙 제3건설 트레스트에서는 조직 사업과 아울러 대중정치 선전사업을 우수하게 진행하여 1955년 계획과제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만반 태세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중앙 제2건설 트레스트에서는 대중정치 선전사업에 무관심한 결과 종업원들의 애국주의적 열성을 매우 저하시켜 건설 사업이 락후한 형편에 처하여 있다

전진이 없는 사업작풍



답답한 량반! 동무가 탄 것이 말이 아니라
목마요, 올해에는 제발 목마 타기를 그만
둡시다

일부 성국들은 지난해 사업총화에서 지적된 바와같은 형식적인 지도와 불균형적으로 진행된 사업의 결함을 다시 되풀이 하지 말고 1955년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결함을 대담하게 시정할 것이다

박 승 히 그림

뒤 꼬리를 따라 다니는 사업작풍

안일하게 끌려 다니지 말고 올
해부터는 앞서 지도합시다!

일부 성 국 지도일군들은 아직도 공장, 제조소들과 건설장들에서 전개되는 광범한 로동대중의 대중적 창발성과 생산 및 건설의 급속한 템포에 비하여 뒤떨어진 지도를 하고 있다

우리의 계획은
천만 백만 인민의 계획
그러기에
이는 우리의 굳은 약속
이는 우리의 법!

계획을 접내던 자들이여!
지난해—
석달이면 복구할 분공장 반년 걸린다고
로력부족
자재부족
자금부족
우는 소리하던 너

기본건설도
증산계획도
불가능을 떠들던 너

그러나
위대한 에네르기의 창조자들이
이룩한 보람찬 열매를
폐허 위에 세운 슬기로운 보배를
보라!
수백의 공장 검은 연기 하늘 높이
다시 뿜어 올려
우리 일찌기 만들지 못하던
선반기며
프레쓰며
타상불반이며 련이어 낳고
화려한 극장
크낙한 학교

재떼미 위에 일어 섰으니

우리 약속 지켜낸 이 승리
얼마나 빛찬 승리이냐
얼마나 훌륭히 이룬 승리이냐
그러나
어찌 그뿐이 며냐?

헐하게 일하려는
예비를 감추려는
대상을 바꾸려는
계획을 주리려는
접쟁이들과 싸워 이긴
용감한자의 승리!

어제의 계획도 초과 달성했으니
오늘
우리 래년 계획 수준 넘쳐서련다

더 많은 행복 낳을련다
산처럼 바다처럼……

맑은 아침 나라 하늘
권양기 소리 높여 일을 재촉하고
공기함마 지축 흔들어 첫출발 고한다
새해
이는 창조적 로력의해
계획을 겁내는자들과 결정적 투쟁의해

그러기에
천만 백만 인민들이
첫 아침부터 그날 계획 그날 넘쳐
나아가고 있으니
한사람같이 더욱 힘차게 일어섰으니
이해 정녕코 래년수준
넘쳐 서리라
앞서 가리라

1955. 1. 1. 구민

국가에 량곡을 파는 기쁨

—앞집 김동무네 보다 20가마니
나 더 팔게 되였군요
—그야 물론이지 우리야 특상 모
를 심었었으니까!

—한꺼번에 200 가마니나 수매소
에 팔고 보니 뭉치돈을 손에 쥐
게 되여 그것으로 농기계도 장만
할 수 있고 기타 영농 자금으
로 계획있게 쓸수가 있게 되였습
니다

국가 량곡 수매 사업이 실시되자 그것이 농민들에게 리익을 도모해주며 인민생활 안정에도 큰 보람이 있음을 깨달은 평안남도 문덕군 한광식농민은 국가에 200가마니의 여유곡을 한꺼번에 팔았다

송 용 남 그림

우리나라 농업협동경리의 길은 농민들을 분산된 개인 경리로부터 점차적으로 집단적 경리에로 전환시키여 농업생산을 급격히 증가시키며 농민들의 수익을 높이고 그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만드는데 있다

이전대로 사는 게 좋다고 고집

성과가 큰 것을 보고 후회

허 한 전 그림

한길 농업협동조합 위원장님은
부대한 몸집
혈색 좋은 온화한 얼굴
흥분도 노여움도 모르며
웃음결 항상 아롱 거리거늘
「호인」이란 별명 째장 어울리네
호인임을「누가 싫어 하리」
콩도 아니며 팥도 아닌
원칙이 없는「호인」
그러기에 조합원들은
「존경」도 하며 비판도 주네

위원장님이 제일 무서워하는것은
맞서는 일과 비판하는 일
금방 큰 사변이 날세라 하여
『좋도록 합시다』
『글세 좋도록 합시다』
이 사람에게 사정
저 사람에게 사정

「호인」인 위원장님
작업이 끝날 시각에는
날이날 마다 작업장을 휩쓰네
로력 점수 기록에 말성만 있으면
반원에게도
『좋도록 합시다』
반장 에게도
『좋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부기원과 동행하다
눈이 휘둥굴어졌네
우마 사육 관리하는 동무와
달구지 부리는 동무
소리 높이 언쟁을 하지 않는가
『이 동문 소를 너무 혹사해요

자기가 낸 소를 부릴 적엔
힙이 지칠까 벌벌 떨어도
다른 소는 이렇게 혹사해요』
그 말도 그렇다는듯
위원장님 고개를 끄덕끄덕
『좋도록 합시다』
달구지 부리는 동무
『잘 먹이지 안 해 여윈걸
혹사한걸로 핑계하는구며』
이 말도 그렇다는 듯 끄덕 끄덕
『좋도록 합시다』
부기원동무 어리둥절했네
『두 동무 다 옳단 말요?
누구 한 사람 잘못이 있겠죠』
그 말도 그렇다는듯 끄덕끄덕
『말성없이 좋도록 합시다』
달구지를 건 채 헐떡기는 황소
눈방울 궁굴리며 위원장을 흘기며
네발을 구르네

위원장님 소를 보며
『소야 좋도록 하자이』
우마 사육관리 동무
화를 버럭 냈네
『우마를 애호 하자구요, 위원장님
이 동무를 철저히 비판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불에 단듯 놀랬네
『이런걸 무슨 비판하다니
글세 좋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여
『좋도록 합시다』가 가지는
무원칙성
융화주의
이런 것들은 전진을 가로 막는것임을
왜 모릅니까

—소 석—

새해 아침

크낙큰 광명과 승리의 노래
三천리 강토에 우렁차게 퍼지어라
백두산 령봉 위로
붉은 노을 펼치며
새해의 첫 태양 장엄하게 솟아 오르거니

빛나는 이 아침 아름다운 이 아침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손을 높이 들어 축배를 올리는
三천만의 우리를 축하하며
새해의 태양
황홀한 꽃잎을 뿌려주네

태양은
항상 선량한 심장들의 동반자
오랜 승리의 력사를 지냈어라
증산의 모타 소리
건설의 함마 소리
우렁찬 교향악 속에
새해의 첫 태양
우리의 희망과 함께 빛나노라

금 빛 파도로 출렁거리는
조국의 바다
풍어의 개가를 설계하는
어로일군의 얼굴을 물들이노라
울창한 고지의 수목들
삭풍에 거슬리며
태양을 향해 가지를 너울거리네
햇별에 잠을 깨였는가

검실검실 기름진 논과 밭
몰몰 오르는 입김 속에
다수확의 결의 다지는 얼굴들
해바래기인양 너울거리노라

조국의 방선은 금성의 철벽
사랑과 청춘을 조국에 바치려는
젊은 지혜와 용맹이여
아침 햇살을 타고 높이 올라라

새해의 아침이여
마음껏 아름다워라 슬기로워라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념원하는
남북인민의 크나한 의지
그러기에 3개년 계획 실행의
결정적인 이 해의 승리를 위하여
이날 이 아침 결의를 다지여라

오 새해의 첫 태양이여
평화의 위업을 위하여
우리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자랑찬 새 출발에 우리 함께 나가자

— 리 석 —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맞으렵니까?
—가장 빛나는 해로 하겠습니다

최 한 진 그림

맹 세

생각은 우람한 잔재로
비록 지나간 한해가 긴 세월은 아니언만
날에 [illegible] 수만리 산하를 넘어서
조선에 차닿는 의로운 벗들의 뜨거운 정성이
평로공 영수의 심금을 울려 주었다

쓰련 형제의 맥박을 느끼는 새 용광로에서
낮이나 밤이나 떠날줄 모르는 영수의 열정에
쓰련기사 유긴은 더욱 새힘을 북돋아주어
벌서 석달전에 년간계획 초과 완수했건만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이 나라의 피 끓는 청춘
천 칠백도의 평온 보장에 심혈을 기우며
용해시간 단축에 노력한 보람으로

백 오십 프로의 위훈을 세웠으나
그래도 그의 심중엔 아직 부족을 느낀다

허지만 부족만을 생각함은 그의 본의가 아니다
—그렇다! 더욱 찬연한 승리로 빛날 조국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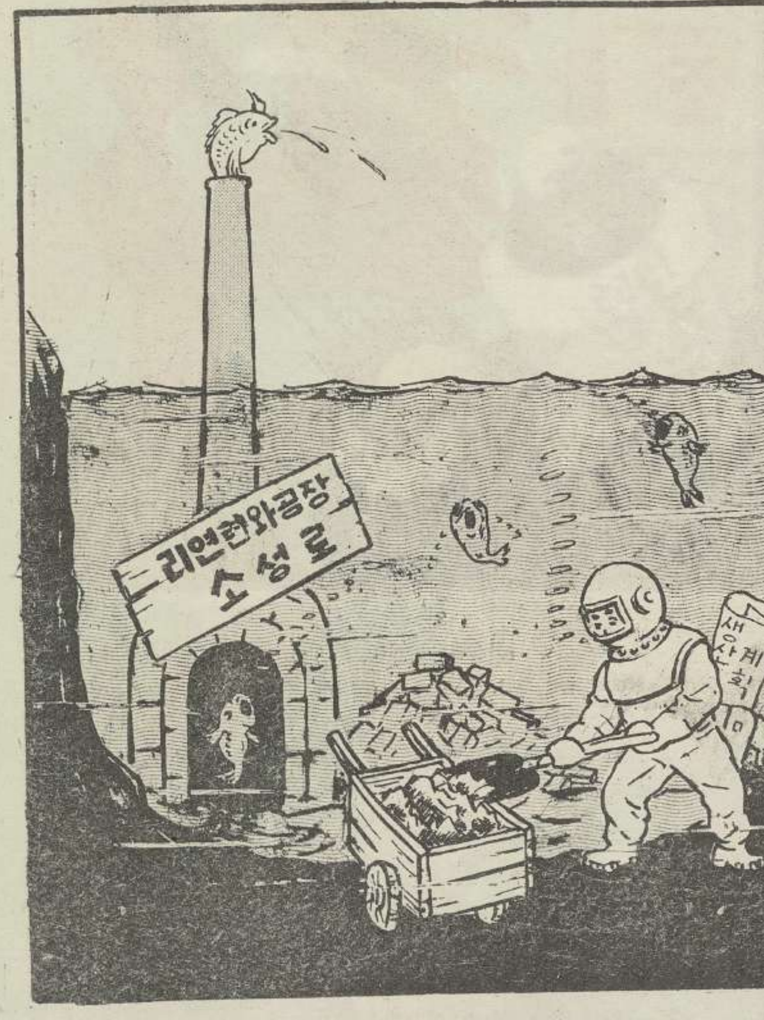
그를 길러 주는 당은
항상 그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거니
내 어찌 승리의 신심이 없으리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원수의 가르치심은
암야의 등불 처럼 그의 앞을 비쳐 주거니
어찌 돌진! 돌진의 걸음을 멈추랴
모든 힘과 정성을 바치여
로력의 탑을 쌓아 올려 이 해를 더욱빛낼것을
당과 수령 앞에 엄격히 맹세한다

송이 송이 흰눈이 다박솔 위에 붉게 물들던
사년전의 월비산 산정
그때도 새해 아침은 찬란히 밝었어라
원쑤와의 싸움에서 용감히 싸워 이긴
영수의 앞가슴이 처지도록 훈장이 빛나거늘
이 아침에도 조국의 장엄한 복구 건설을
옛 전우들과 지원군 전우들이 한결같이
철벽의 방선에서 철옹성같이 지키거늘
그들의 억센 심장들이 드높이 고동치는한
어떠한 원쑤도 우리의 돌진을 가로 막지 못한다
평화의 초소에 선 영용한 전우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철석같이 다지는 평로공 영수의 맹세가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새해 첫 아침의 붉은 태양이여!
힘차게 솟아 올라 만공의 축복을 주라!

(석 광 봉)

안 창 수 그림

물고기의 「감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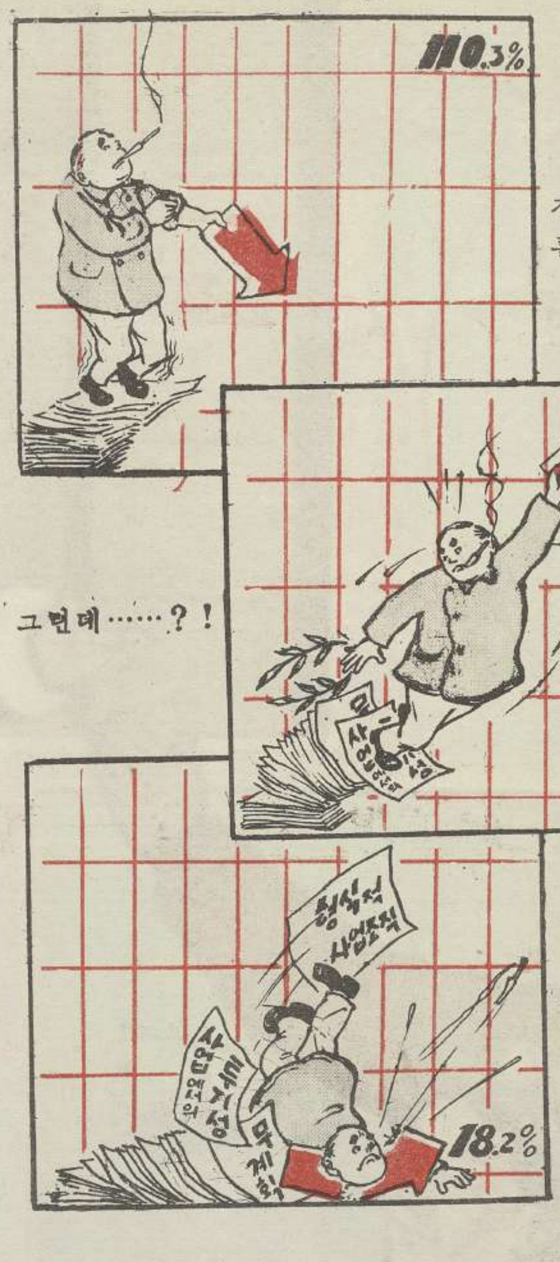


고기 ―지배인 동무! 우리들은 당신의 특출한 재간에 놀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 영 근 그림

리연 련와공장 지배인 리명준은 로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지 10만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물구덩이에다 건설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확고 하지 못한 출발



자신 있게 목표를 겨누 었다

그런데……?!

당연한 결과

원산 수산 사업소 지도 일꾼들은 형식적으로 사업을 조직 실시한 결과, 년간계획을 110,3%로 초과실행하겠다고 장담 호소한 것이 겨우 18,2%바께 실행 못했다

최 영 근 그림

「점잖은 사람」들

평양섬유공장은 생산 실적이 락후한 것이며 공장 내부는 어데나 솜 무데기가 막 나르며 수도 시설이 없어 로동자들은 먼지 투성이를 한 채 지내야 하며 합숙에는 기구도 제대로 가추지 못 한 채 불결하기 짝이 없다

생산 실적이나 생산문화가 잘 되여 있는 다른 공장들의 말을 들을 적마다 로동자들은 몹시 부러워 했다

그래 지배인 김병원동무에게 로동자들은 이런 결함을 시정할 데 대해 자조 제의했다 이 공장의 이런 결함을 가져 오게 된 원인은 지배인 김병원동무가 결함을 제때에 비판하며 시정할 대신에 「점잖은」 풍을 내노라 그저 방임해 주는 낡은 사업작풍임을 로동자들은 잘 알고 있다

『한 평생 좋은 말만 해도 못 다 할텐데 왜 나쁜 말을 하겠소?』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번이라는데 왜 싫은 소리를 하겠나 말이요? 점잖지 못 하게……』

이런 말을 하며 「점잖」을 빼기가 일수다 김병원동무의 이런 사업작풍은 평양시인민위원회 지방산업관리부 지도원 김철성동무의 작풍과 상통했다 김철성 지도원은 어쩌다가 오랫만에 공장에 나와 보고는 눈 앞에 나타난 결함들은 못 본체 하며

『지배인동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만 해도 잘 된 셈입니다』

이렇게 「점잖게」 융화하고는 돌아간다 소위 「점잖은」 것으로 련결된 지배인과 지도원의 낡은 작풍에서 평양섬유공장은 모든 면에서 답보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며칠 남지않은동안 년간계획실적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하고 지배인은 산판을 아모리 튕겨보았으나 78%를 더 넘길 수는 없었던 것이다

12월 중간 총화를 가지게된 날 지배인은 자기와 뱃장이 맞는 김철성지도원을 아침부터 기다렸다

회의가 시작된지 반시간이 넘어서야 김철성지도원이 당도했다。

본시 「영리」한 지도원은 회장의 긴장된 공기를보고 성큼 토론에 나섰다 그는 첫 마디부터 생산률적에 대한 지배인을 높이 치하했으며 평양섬유공장은 기술전습이나 생산문화가 잘 된것으로 평가해 말했다 지배인은 연송 벙글 벙글 했다

그러나 로동자들로 부터 기술전습은 언제 있었는지 기억조차 까마득하며 50여명이 들어앉을 수 있는 구락부에는 의자가 서너개 있을 따름이고 공장안이 무질서하기 짝이없는 형편에 처해 있으니 이러다가는 금년도의 계획이 보고에도 지적된바 그대로 78%에서 더 저하될 우려가 보일뿐아니라 명년도의 1.4분기 계획에 큰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는등 여러가지 결함에 대한 신랄한 토론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왔다。

김철성지도원은 얼토당토 않은 토론으로 대중의 의사를 묵살할 수 없다는것을 알고 급한 용무를 핑계하여 도중에 빠져 나갔다 지배인은 당황하여 그의 뒤를 쫓아 따라갔다 지배인은 지도원을 목청껏 불렀으나 대답조차 없으며 돌아오지도 않았다 지배인은 갑자기 고독을 느꼈다 소위 「점잖은」 것에 사로 잡힌 지배인은 더욱 「점잖은」 지도원동무 만이 그리웠다

장 필 순

중앙 자동차 및 도로관리국 평양 건설트레스트의 기사장은 국가와 인민에게서 받은 중요 직책을 망각하였다 현장은 무질서하며 사업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게 않음으로써 자기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무책임한 일꾼

―기사장 동무!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매일 같이 하는 일을 따라다니며 물어 보아야 할까?

최 한 진 그림

―또 늦었네
―아직 직장장도 오지 않았는데
자넨 무슨 공연한 걱정인가?

최 한 진 그림

100%의 능률

로력 랑비 현상을

사무 간소 화에로

리 영 춘 그림

쇠 기둥을 깎아서 바늘 만들기

어떤 기업소들에서는 오작품의 퇴치와 랑비 현상을 근절하지 못함으로써 원가 저하를 위한 투쟁을 미약하게 전개하고 있다

리 영 춘 그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길을 가르켜 주는 호소문은 그야말로 「괴상」한 힘으로 남조선 방방곡곡을 바람 처럼 휩쓸고 있다 이럴수록 리승만 괴뢰도당들은 호소문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더욱 발악하고 있다

특히 괴뢰군 헌병사령부 장교들까지가 호소문을 전달하며 괴뢰군대들의 사기가 날로 저하됨을 따라 리승만은 특별대책을 「내무장관」 백한성에게 명령했다

백한성은 각도 경찰국장회의를 소집하고 호소문 침투 방지에 대한 엄명을 하는 동시에 날 마다 보고를 하게 했다 리승만의 신경질에 겁이 난 백한성은 출근하면 다른 일은 제쳐 놓다 시피 하면서 치안국장으로부터 보고 받는데에 열중했다

그러나 날 마다 호소문의 침투 사건은 늘어만 갔다

『오늘은 어때?』

치안국장이 내무장관실에 들어 오기가 바쁘게 백한성은 소리쳤다

『서울시내가 48건, 경기도가 59건, 충청북도가 37건, 충청남도가 41건』

치안국장이 서류를 들고 읽는 것을 듣고 있던 백한성은 손에 들었던 상아물뿌리를 테불 위에 팽개쳤다

『그걸 이리 놔 줘』

백한성은 소리를 꽥 질르고는 치안국장이 주는 보고서를 훑어 보는 동안 얼굴은 점점 찌푸려졌다

『39건이 더 늘었어? 치안국장은 뭘 하는거야? 누가 늘어 가는걸 알겠다 했나?』

백한성은 머리가 띵— 했다。알수 없는 이 「괴상」한 힘이 그를 짓누르는것만 같다 리승만에게 보고할 일이 제일 걱정이였다 수짜를 주며서 보고할까 하는데 마침 전화벨이 울렸다

『네 네 이제 보고 받었습니다』

백한성은 떨리는 음성으로 전화를 하는것이였다

『네 네 보고하겠습니다 저 저 서울시 내가 48건, 경기도가 59건……』

리승만이 홧김에 전화기를 부드쳐 놓는 통에 백한성은 말을 중단하며 귀를 막았다 귀가 너무 찡— 울려서였다

백한성은 두 볼이 터지게 불고 있다가 외투를 걸치는둥 마는둥 허겁지겁 나갔다 자동차를 서울시 경찰국에로 달렸다 백한성의 심상치 않은 기색을 보고 경찰국장은 한동안 어리둥절하다가 호소문 적발에 대한 보고를 시작했다

『그따위 숫자는 소용 없소 한 놈이 라도 잡았냐 말야 그걸 보고하시요』

백한성의 호통질에 경찰국장은 입을 벌린 채 서 있을 뿐이다

『있소? 없소?』

『없습니다!』

경찰국장은 까무러지며는 음성으로 겨우 말했다 백한성은 갑자기 벙어리가 된듯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과연 모를 일이다』하는 생각에 사로 잡혔던것이다 생각할수록 심상치 않은 일이였다 이런 일이 점점 확대되면 리승만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은 가히 짐작되였다 불길한 생각에 몸서림까지 끼쳤다

백한성은 회현동에 있다는 「유명」한 점쟁이 겸 관상쟁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생각되였다 재무장관도 농림장관도 그 집에 찾았던 일이 있었던 만큼 백한성도 갑자기 맘에 당겼다

그는 회현동에 사는 친구의 집에로 그 자를 불러 오게 할 작정을 했다 백한성은 친구의 집에 당도하던길로 부탁했다 그러나 관상쟁이는 온다 하고는 이내 나타나지 않았다 백한성은 기다리고 있으며니 더욱 맘이 달아 그 집을 나와버렸다

『제기할것, 호소문 바람에 야단 났구나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

백한성은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벌떡 일어났다 다시 경찰국에 가서 호소문 침투 방지에 대한 작전을 꾸미려는것이였다

백한성의 자동차가 경찰국 현관 앞에 정거하자 경사 한 명이 급히 달려 오면서 『호소문』이라고 외쳤다 백한성은 머리 끝이 쭈뼛거리며 그 자를 보니 내무장관 전용자동차 꽁무니에 반뜻이 부처 있는 호소문을 뜯어 가지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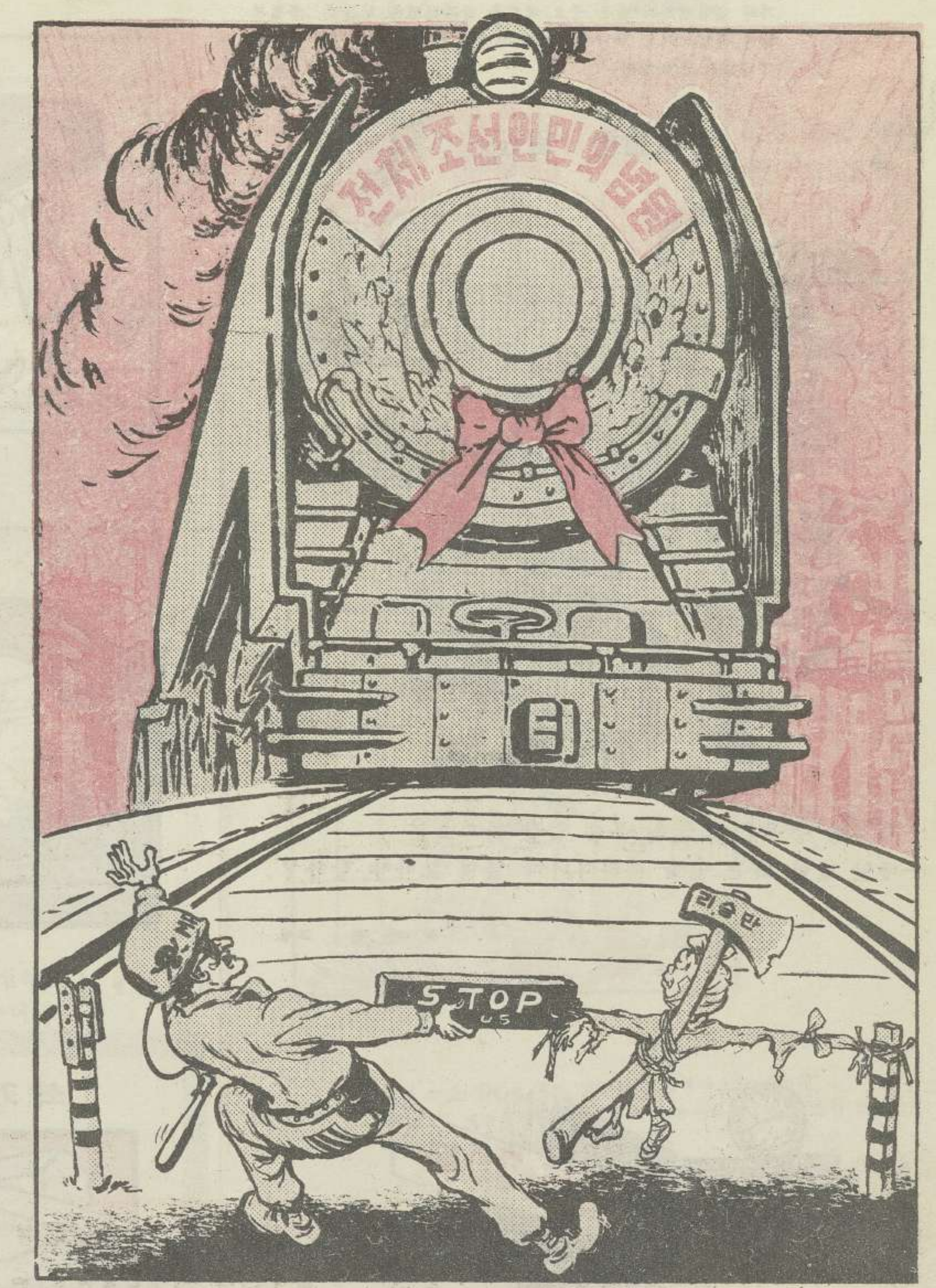
백한성은 눈을 흡뜨며 뒤로 넘어질번 했다 자기 자동차가 부처 가지고 서울 한 복판을 달린 이 호소문은 어데서 부쳤을까 회현동 골목에서 생긴 일임에는 틀림 없으나 하여튼 괴상한 일이였다

『참 모를 일이다 모를 일이다』

백한성은 미친 사람 같이 외쳤다 사실 미국 주구로서의 그의 두뇌를 불에 태워 버리기 전에는 풀 수 없는 모를 일이였다

우 관

원 광 수 삽화



무모한 차단기

리 영 춘 그림

남북조선간의 통행 및 서신 교류를 재개하자는 공화국 정부의 제의를 리승만 역도들은 미제의 지시하에 아무 리유없이 거절하였으나 조선 인민은 어떠한 방해 책동이 있더라도 자기의 절실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리승만의 신년 흉계

리승만은 「신년계획」에서 초근목피로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략탈하여 미제 상전의 주머니를 더욱며 채우려 하고 있다

박 승 히 그림

인민들의 지향

리승만은 인민들을 전쟁 준비에로 내 몰았으나……

인민은 평화적 조국 통일의 길로 일어 섰다

송 용 남 그림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남조선 청년들을 전쟁의 대포밥으로 만들기 위하여 강제로 군사훈련에 몰아내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의 반대투쟁에 의하여 그들의 시도는 파탄되고야 말것이다

로흉 리승만은 경찰 테로 독재를 유지 강화 하기 위하여 22개의 형무소 신설을 「건설계획」 이라고 「자랑」 하고 있다

리승만 도당은 미제 상전의 명령대로 「국방력 총동원 계획」 이라는 고함을 지르며 「괴뢰군 증강」 에 발광을 치고 있다

매국노 리승만은 초근 목피로 련명 하는 남조선 농민들에게 「식량 절약」을 웨치면서 「3백만석의 량곡 수출」이 넌초 「계획」 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백 인 군 그림

삼천만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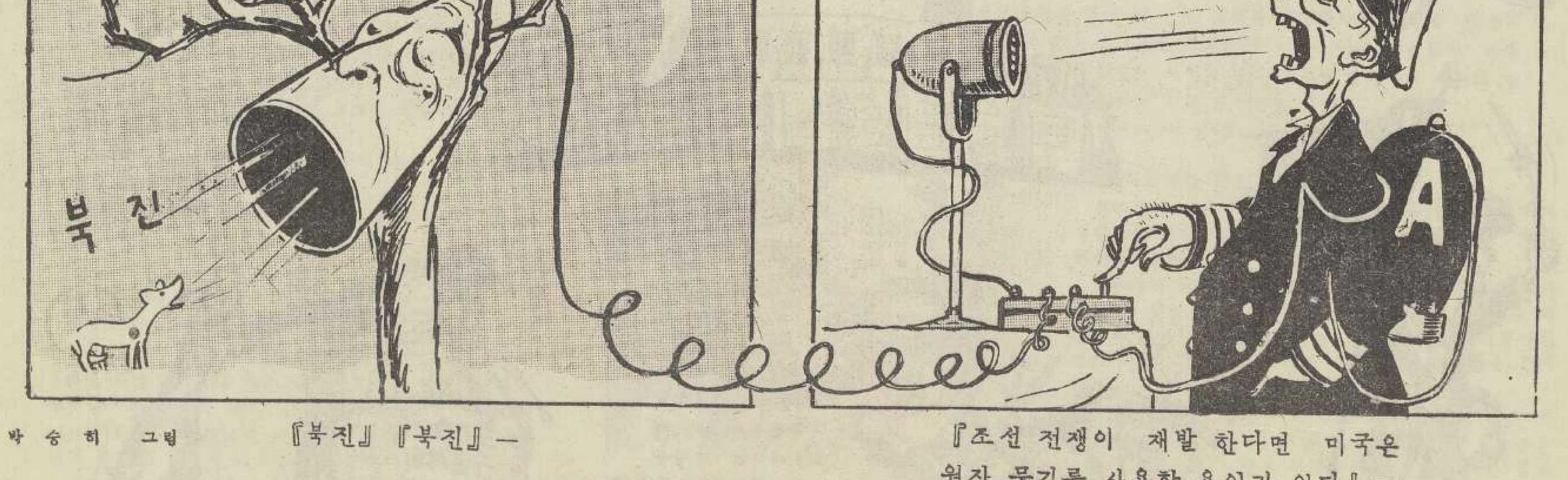
지금 남조선 인민들은 최고 인민 회의 호소문을 지하에서까지 인쇄하여 남조선 각계에 광범히 배포하는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리승만 역도들은 가혹한 테로와 탄압을 가하고 있으나 평화적 조국통일 달성을 위한 조선 인민의 불길같은 념원을 꺾을수는 없다

리승만—아이구! 호소문 폭풍에 눈을 뜰수 없구나 이놈들아 빨리 막아 치워라!

졸도들—네! 네! 아모리 치워도 자꾸 쏟아져 나옵니다

백 인 준　그림

또『원자탄 소동』



박 승 히　그림

『북진』『북진』—

『조선 전쟁이 재발 한다면 미국은 원자 무기를 사용할 용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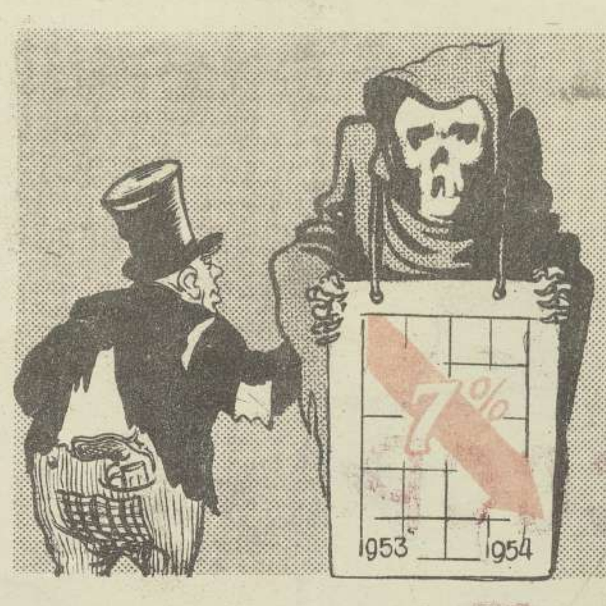
미국 호전분자 헤드포드는 지난 1월 2일 서울에 나타나『조선 전쟁이 재발한다면 미국은 원자무기를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떠 버리면서 리승만의「북진」발광증에 부채질 하였다

이것이 미국의「평화」다

아이젠하워는 그의 장황한 교서의 약 3분지 1을 그들이 조작한 침략적 군사 뿔럭들에 대한 찬사와 이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그의 희망과 원자 수소무기를 포함한 군비 경쟁의 강화에 대한 호소에 허비 하였다

장 진 광　그림

1954년도 미국 경제의 총화



사실을……

거짓으로……

혼내겠다

리능영

요사히 영국의 "저명"한 정객들과 장군들 사이에서는 미국 승냥이의 꼬리가 드려다 보이는 "혼내겠다"는 소동이 번번하게 벌려졌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는 격으로 먼저 몬토고메리가 "기세"를 올렸다 그는 어느날 앙카라에 나타나 흑해 건너를 손가락질 하면서 악을 썼다……—내가 대표하는 무려운 원자 무기를 사용하게 될것이다—

이슬람베그들이 그의 앞에 허리를 굽히고 "축복"의 기도를 올렸고 워싱톤의 주인들은 만족한 미소를 띠우고 "거룩한 어조"로『용감한 투사』라 례찬 하였다 이 바람에 신이난 그는 로스안젤쓰에 나타나 입에 거품을 물고『기적을 발휘할』원자 전쟁에 대하여 떠들어 대면서 쏘련을 향하여 악의에 찬 목갈린 소리로—우리는 당신들을 혼내겠다—고 호통질 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름 난 전쟁 방화자인 처칠은 우드포드에서 제2차 대전말 시기에 영국의 지구상에서의 멸살의 위기를 구원해준 쏘련과의 새전쟁을 위하여 어제까지의 원쑤인 베르마흐트를 리용하려고 그들의 무기를 잘 보관해 두라고 몬토고메리 에게 지시한바 있다고 태연스럽게, 그것도 자랑 삼아 말하였다…… 역시 처칠답게 몬토고메리 보다 그는 뛰여나게 "대담"하다 처칠은『원자무기를 가지고』라고는 말하지 않었지만『구라파 공동체의 번중』인 악명 높은『서구동맹』으로써『당신들-로시야인을 혼내겠다』고 고함 치고자 하였던것이다

미국에 대한 지극한 "충성심"이 이것으로써도 모자란다고 생각한 영국의 "벗들"은 또다시 유•엔 영국대표 넛팅의 어리석은 장고대를 꾸며냈던 것이다 넛팅이 뉴욕 텔레비존 앞에 나섰을때 그는 툿지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푸리 하였던 것이다—만약 중국이 대만을 해방시킨다면 그것은 유•엔 성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될것이며……영국은 유•엔의 한 성원국으로써 이 사건에 관여 할 것이다—

그리고……사실 인즉 그는『그리하여 우리는 중공을 혼 낼것이다』라고 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넛팅의 이 수작이 단순한 "젊은 외교가의 혈기"에서만 온것이라고 믿을수 없다는데 있는것이다"욕심"과"망동"에도 분수가 있는 법이라……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미국의 악부와 지휘하에 진행된 허수아비들의『혼내겠다』는 삼중창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어하튼『혼을 내겠다』는 "무시 무시"하고도 "어마어마"한 "위험한 고백"의 "위력"을 진짜로 믿을 사람은 없다 "희망"과"현실" "장담"과 "실력" 간에는 거리가 아주 먼것이다『혼을 내겠다』는 자가『혼이나게』될것이며『바람을 이르키며는 자가 태풍을 맞나게 되리라』는 것만은 움지길수 없는 진리다 그렇다!『겸손』치 못한 이 모험가들도 다시 한번 력사의 교훈에 눈을 돌리는것이 무익하지 않으리라!

바로 1918—1920년대에 처칠을 선두로한 승냥이떼 들이 청소한 쏘베트 공화국을『혼내겠다』고 덤벼들 었다

그래 그 결과는! 범려자 자신들이 혼났던 것이다 힛틀러도 쏘련을『간단히 혼 내겠다』고 미쳐날뛰였다 그래 그결과는! 힛틀러와 함께 그의 공모자들이 아주 녹아나고만 것이다

중국 인민을『혼내겠다』고 마샬이 진땀을 흘리면서 겁을 휘둘렀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찬란한 승리앞에 그모험가 자신들이 혼비백산 도망쳤던것이다

그리고 펜다곤의 장군들과 여기에 나타난 "폭언자"들은 최근 년간에 있는 하나의 사실을 기억할수 있을 것이다……조선 인민을『본때있게 혼내겠다』고 승냥이 떼들은 발악 하였었다

그러나 사태는 조선 인민 앞에 간섭자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났다

그런데 요즘의『반공영웅』들의 경우가 례외로 될수 있는 "행운"을 기대할수있을까? 암소가 뿔질하고 하나님이 피리를 분다하여도 아무것도 생길것은 없노라 고말해야하겠다　1954•12.31.

력사적 큰 사건

쏘련 내각은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에의 리용에 관한 연구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국 파란 체코슬로바끼야, 루마니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들에 쏘련의 과학 기술 및 생산상 원조를 제공할데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평화를 위하여 원자력 경험은 전 인류에게 제공 된다

장 진 광 그림

미국의 살인적 광신자들에게는 최대의 비애로 되고 있다

책임주필 장 진 광 발행소 활살(시사 만화 잡지)사 인쇄 1955.1.20
인쇄소 국 립 종 합 인 쇄 소 발행 1955.1.25
ㄱ-30010 (값 90 원)